땅땅거림 대신 참 떵떵거림

(에스겔 45:1~25)

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3.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땅거림 대신 참 떵떵거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땅거림 대신 참 떵떵거림'
어제까지 이어진 성전 환상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는 47~48장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과 왕에게 주어지게 될 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 요새는 땅 값이 올라서 남자는 하늘하늘 눈치를 보며 살고 / 여자는 땅땅거리며 산다"
'하늘하늘하다'는 것은 하늘거리다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힘없이 늘어져서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재력이 없어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된 남편의 처지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땅땅거린다는 표현은 실제로 사전에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뽐내면서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 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큰소리치며 살다."라는 뜻입니다.
땅땅거리다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더 잘 쓰이는 표현으로는 떵떵거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뽐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땅땅거리다 쪽이 본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

날에는 재산이 주로 땅이었습니다. 땅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강조하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땅땅거린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다 이해를 넓혀보면 꼭 토지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뽐내면서 거들먹거리며 큰소리치며 사는 것을 두고 땅땅거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떵떵거리다는 땅땅거리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임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땅땅거리다는 오직 땅에 속한 가치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는 마음이라고 하고, 떵떵거리다는 어떤 것이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치를 많이 가져서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해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을 가치를 오직 땅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는 사람은 없고 땅땅거리는 사람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가치를 땅에서 갖게 하는 길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땅에 있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떵떵거림은 땅땅거림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진 것을 뽐내며 땅땅거리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채워서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떵떵거리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지하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떵떵거리는 삶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땅땅거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밖에 없었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하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시에서는 하늘하늘하다는 것이 힘없고 가벼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모세의 하늘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마음을 가득 채웠기에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떵떵거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공회에서 매 맞고 예수 전도하는 것을 금지 당했을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5~16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써 이렇게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떵떵거리는 것은 마음에 소중한 가치를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고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

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을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에 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과 왕에게 분배되는 땅에 대한 내용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땅을 분배해주시는 이유는 땅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졌음으로 인해 뽐내고 자랑하며 땅땅거리지 말라는 이유에서 땅을 분배해주신 것입니다 .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 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홈은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농사지을 땅이 더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목민들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1000루블만 주면 하루 종일 걸어서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온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홈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고 해가 질 무렵에 간신히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을 소진한 나머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홈이 얻은 땅은 자기가 묻힐 한 평의 땅뿐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선민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땅을 분배해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땅에 있는 가치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고 땅땅거리면서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의미에서 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땅땅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당당하게 자랑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의 모습을 한 번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길쭉하게 팔레스타인(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중간에 동서로 13.75km 남북으로 5.5km 직사각형 모양의 하나님 명의로 구분된 땅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 땅에는 가로세로 275m 정방형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게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레위인에게 땅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옆에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게 하였습니다. 동서의 13.75km의 길이는 똑같지만 남북으로의 넓이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땅의 반에 해당하다는 2.75km입니다.
간단히 나타내보자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3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기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은 왕에게 주는 땅입니다.
실제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땅의 분배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이 지어진바 없는 것처럼, 이러한 땅의 분배도 포로귀환 이후에 실제로 땅이 이대로 분배되었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분배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모든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땅 분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이는 성전 생활화를 하는 선민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할 때에 레위인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에게도 땅이 분배됩니다. 성전 생활화를 하는 삶을 살 때에 왕처럼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명의의 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땅 분배를 통해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민들에게 제시된 성전 생활화의 삶이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땅땅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 같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처럼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을 보면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땅에 살지만 가까이 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을 가지고 싶어 하고 하늘에만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제사의식을 주도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민들이 평생 해야 할 일 또한 제사장과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준점으로 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십자가 생활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배우자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이기 이전에 제사장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으며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아내이고 남편이자 부모이고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선민이 아닙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나 깨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직장은 가로

세로 275m의 정방형의 성전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는 나를 성전의 뜰로 삼아 가족들이 성전을 생활화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나는 성전의 뜰이 되어 동료들이 성전을 생활화합니다. 어디를 가든 이러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레위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가는 곳마다 육체와 연관된 영역 안에서 레위인의 직분을 수행하며,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전 뜰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신다면 직원이 아니라 제사장이자 레위인으로써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시체인 제사장으로써 직장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취직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사장님 회사에 취직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장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 향하는 제사장의 상태는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고파서 불평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고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문제로 분투할 때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분투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싫든 건강이 주는 마음의 감정, 돈이 주는 마음의 감정, 가족과 직장에서 받는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환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 취직시키고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레위인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직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왕처럼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의 자리는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총리였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 바로뿐이었기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민의 나라에서는 일신지하 만인지상(一神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왕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백성들을 쥐어짜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민의 왕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모든 백성에게 분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갖는 제사장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갖는 자들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섬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면 하나님을 갖는 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레위인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닿는 성전의 영역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써 온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섭리가 아닌 인격적인 다스리심이 닿을 수 있는 지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 뒤에 선민의 왕과 같은 역할이 시작됩니다.

내가 비록 회사에서는 과장일지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뿐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말씀에 잘 따르는 것은 단순히 사장님이 윗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말을 따를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과장의 업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종의 입장은 꼭 벗어나야만 하는 처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왕입니다. 내가 오늘 회사를 나가는 이유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회사에 나가 일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사장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때에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모를 때에는 땅땅거리기에 바빴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시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자랑하고 뽐내며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재산이 있든 없든, 학벌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기가 죽어 있다면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생활화하게 되면 삶은 당당해집니다. 내 위에 하나님뿐인데 세상의 누가 나의 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열다섯 살짜리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기를 꺾을 수 없는 신앙의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 때에 세상 전체가 덤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떵떵거림에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땅땅땅 노래를 부른 것은 땅에 대해서 죽으면 땅에서 사는 동안 떵떵거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땅에 대한 땅땅거림이 끝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면 하늘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 땅의 그 무엇도 나의 기를 꺾을 수 없는 떵떵거림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레위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떵떵거림의 기를 꺾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